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그 로고의 나날속에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매 단계마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불멸의 업적도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이 애국위업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1990년대중엽에 이르러 재일조선인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당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민족자주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진군길에 들어선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력사적인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불멸의 총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서한에서 총련의 결성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업적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겨온 총련의 40년간 로정을 총화하시였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으며 총련을 사상적으로 굳건하고 단결력이 강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길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주체84(1995)년 3월 2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도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총련의 사업환경이 많이 달라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총련을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사상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사상교양사업을 총련의 실정과 환경에 맞는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총련을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주체의 애국조직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총련조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지부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현정세와 총련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시였다.

언제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생각하시며 걸음걸음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총련은 시련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애국위업의 한길을 힘차게 이어올수 있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불멸의 업적을 자자손손 길이 전해갈것이다.

채 설 경

《일본정부는 차별정책을 철폐하라》

-도꾜에서 일본의 차별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진행-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인권권고의 준수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행동이 얼마전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학교 배제와 일본군성노예문제, 입관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만연되고있는 차별정책철회를 위해 활동하고있는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2013년에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후 해마다 시위행동과 모임 등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권고의 준수와 차별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여왔다.

집회에는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부장은 재일조선인들은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차별정책과 인권침해속에서도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력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보장은커녕 시종일관 차별해왔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조선학교차별과 관련하여서도 유엔의 각 인권조약위원회가 일본정부에 거듭 시정할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면서 《인권을 중시할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 차별철폐를 위해 힘써나가야 할 때이다.》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시위행동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유엔인권권고를 지키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였다.

본사기자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10)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탈퇴선언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은 더욱더 횡포하고 무분별해졌다.

2002년 1월 30일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년두교서》라는 데서 공화국을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있는 나라》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오만하게 폭언하였다.

한편 2002년 3월 미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방성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는 로씨야와 중국, 조선과 수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조미대결이 첨예한 국면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2003년 1월 6일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효력발생을 림시 정지시킨 공화국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공화국을 《죄인》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이러한 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2003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성명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단호히 단죄배격하면서 미국이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중지와 적대의사표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켜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임을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에 미국은 완전히 수세에 몰려 갈팡질팡하였다.

미국내에서는 2002년 12월 12일 공화국의 핵시설동결해제조치발표이후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씨나리오》가 끝내 터져나왔다는 비명이 울려나왔다. 또한 야당이 백악관을 공격하고 의회에서도 당적에 관계없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따로따로 돌아가는가 하면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두고 《널뛰기》, 《랭온탕》이라고 비난조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남조선언론들도 조미대결에서 《언제나 례외없이 미국은 가공할만한 군사력을 동원할수 있었고 북은 고립무원이였으나 결과는 미국이 북에 무조건 사죄하고 항복》하는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서 2003년의 핵대결에서의 미국의 패배를 공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여 온 세계가 끓고있던 그때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한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있다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백배, 천배로 강해지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인민들이 생활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있지만 그들은 당의 두리에 튼튼히 뭉쳐 승리를 락관하며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고, 이런 인민을 가지고있는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미국이 칼을 빼들면 맞받아 장검을 휘두르고 미국이 강경으로 나오면 초강경으로 맞서 미국의 오만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것,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단호한 립장이다.

본사기자 박 해 방

《좋든싫든 북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이다》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터네트들에는 수많은 반영들이 오르고있다.

그가운데는 미국인들의 반영도 있다.

-《북핵문제》는 부쉬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란, 이라크,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직접적인 결과임을 잊지 말자.

-《악의 축》을 기억하는가?

부쉬는 이란, 이라크, 북조선을 그 무시무시한 이름의 명단에 집어넣었고 그중 가장 약한 나라를 즉각 침략하였다. 나머지 두 나라가운데 북조선은 현재 핵보유국이다.

《악》이라고 지목한 리유는 그 두 나라를 괴롭혀서 화해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던가?

그랬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던것인가?

-좋든싫든 북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이다. 북조선은 체제의 초석인 핵과 미싸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협상하는것일지도 모른다.

-북조선은 자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다.

북조선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회수(0)에 대비해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한 회수를 모두 세여볼가?

본사기자

오늘도 울려오는 광주의 메아리
민족자주는 생명

우리 민족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는 수만명의 조선청년학생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린 광주학생사건도 있다.

1920년대말 당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파쇼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와 략탈에 매달렸다.

더욱 횡포무도해지는 일제의 착취와 박해, 민족적멸시책동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울분과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이러한 때인 1929년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라주사이의 렬차안에서 일본남학생들이 한 조선녀학생을 희롱하며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제의 극단한 조선민족멸시정책의 필연적산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였다.

당시 일제경찰은 응당 처벌해야 할 일본학생들을 비호하는 반면에 조선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일제의 어용보도기관들도 이 사건을 조선학생들의 《소요》로 외곡보도하였다.

이에 격분한 광주의 조선학생들은 11월 3일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를 웨치며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청년학생들의 완강한 투쟁진출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계엄상태를 선포하고 경찰은 물론 소방대와 군대까지 동원하여 시위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도 조선청년학생들의 민족적의분과 투쟁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광주에서 일어난 대중적반일투쟁의 불길은 평양과 신의주, 함흥, 개성, 서울, 대구, 부산을 비롯한 전국도처에서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타번지며 급속히 확대되였다.

1930년 4월까지 계속된 청년학생들의 대중적인 반일투쟁은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증오와 원한의 폭발이였으며 침략의 무리를 내쫓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민족적의지의 분출이였다.

광주학생사건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대륙침략준비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견결한 민족자주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애국적투쟁이였다.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90여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끝내 회피하면서 력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 재침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군사대국화와 재침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최근 일본은 장거리미싸일개발과 무인기, 무인정의 도입, 탄약과 연료 등 전략물자구비량의 증가를 위해 2023회계년도 군사비예산을 대폭 늘이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피로 얼룩진 과거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천년숙적인 일본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과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 민

민족을 등진 사대매국노의 말로는 비참하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로 악명을 떨치던 박정희역도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때로부터 43년이 지나갔다.

1979년 10월 26일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인 독재정치를 일삼던 《유신》독재자는 심복의 총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10.26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사살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숨막히는 《유신》파쇼통치의 필연적귀결이였다.

《유신》독재자의 집권기간은 파쇼통치로 인민들을 탄압학살하고 극악한 외세추종과 동족대결로 민족의 운명을 롱락한 반역행위로 일관되여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조종밑에 무력으로 《정권》을 강탈한 군사불한당들은 군사파쇼독재체제를 수립하고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였으며 살벌한 공포정치, 정보정치를 실시하였다.

《유신》독재자는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살수 없다. 민족이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관계할바가 아니다. 〈유신〉의 안보가 제일이다.》고 떠벌이며 동족대결의 콩크리트장벽을 높이 쌓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과거죄악을 몇푼의 돈으로 덮어버리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유신》독재통치가 가져온것이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의 심화,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경제적파국, 민생악화, 민족분렬의 지속과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립, 전쟁위험증대뿐이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마침내 1979년 10월에 이르러 장기간에 걸친 《유신》독재자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독재정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는 대중적인 항쟁으로 폭발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바빠맞은 미국은 쓸모없게 된 식민지노복을 제거하기로 하고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을 내세워 사살하고말았다.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인민을 등진 사대매국노, 파쇼독재자는 불피코 제가 지은 죄로 하여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으며 쓸모없게 된 주구를 미국도 가차없이 차던진다는 력사의 교훈을 남기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새 생활에 대한 념원은 어느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다.

오늘도 남조선은 외세의 지배밑에 놓여있고 동족대결과 파쇼만행도 예전그대로이다.

특히 민심을 기만하여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윤석열역도는 력대 통치배들을 릉가하는 반민족적, 반인민적정치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역적패당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남조선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놓고 침략적인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매일과 같이 광분하고있다.

최근에도 역적패당은 조선동해에 미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남조선 미국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데 이어 남조선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남조선미국일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있다.

또한 파쇼악법을 마구 휘두르며 전쟁반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진보세력들과 언론에 대한 탄압에 매달리면서 살벌한 《공안통치》를 되살리고있다. 한편으로는 친재벌, 반서민《정책》을 추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개악을 다그치는 등 반인민적악정에 매달리고있다.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자 민심에 역행하여 정치를 제 입맛대로 해대는 윤석열역도의 오만과 독선은 민생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혼란만을 증대시키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배격은 최절정에 달하고있으며 《일찌기 이런 〈정권〉은 없었다.》, 《최악의 〈정권〉이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역도를 퇴진시키고 탄핵에로 몰아가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백번 땅에 머리를 박고 남조선인민들앞에 자기의 죄과를 사죄할 대신 겨레의 지향과 민심에 계속 엇서나가면서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고있다.

얼마전에는 《유신》독재자의 묘에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여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것은 박정희역도를 파멸에로 몰아간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는짓으로서 《유신》독재시기를 되살리려는 역도의 범죄적흉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은 제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더욱 깊숙이 파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밟는 윤석열역도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